

순천시, 디지털 행정 표준 만든다

일 방식·대민서비스 개선...24시간 맞춤형 민원응대 '챗봇' 운영

순천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시는 24시간 맞춤형 민원응대를 위해 지능형 자동상담 '챗봇(chatbot)'을 구축·운영하는 등 디지털행정 혁신을 통한 일 방식·대민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이다.

시민들은 이번 '챗봇' 서비스를 통해 행정·교통·복지·관광 분야 등 궁금한 민원사항에 대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텍스트뿐 아니라 지도, 관련 사이트 링크,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종이문서 절감과 일 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 업무는 전자문서 처리로, 종이보고를 전자보고(전자결재·메모보고)로 전환하고, 간부회의와 주요 업무보고는 노트북·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보고로 추진하며, 회의 방식도 회의자료를 태블릿PC에 탑재하거나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시는 전자보고 활성화와 정보공유 인프라 조성을 위해 태블릿PC를 전 부서에 확대 보급하고 특별 노트북을 1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RPA)한다. RPA는 인공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활용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자동분배와 코로나 19 문자 자동발송 등 단순·반복하는 업무를 자동 처리한다. 사람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보다 소모 시간을 단축해 신속성이 향상되고 실수나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공직 내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과 모바일 기반 대민서비스를 접목해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차별화 콘텐츠로 생태수도 입지 다지고...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 도약 기대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제12회 2023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서 대상을 수상했다.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이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박람회를 추구 하고 있다.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와 차판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농경지는 대규모 경관정원으로 변모했다.

시내 중심을 흐르는 동천은 뱃길이 되어 정원체 협선이 오고가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준비됐다.

이에 따라 도시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생태도시 모델로 지역 발전을 견인한 성과로 '로컬 콘텐츠 페스타'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오른쪽 세번째) 순천시장이 '2023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 대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입지를 견고히 할 전망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만든다

"모든 기부자에 감사의 마음 전할 것" 군민중 수여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청사 1층 로비와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일정 금액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 기부자는 골드, 400만원 이상은 실버, 300만원 이상은 브론즈로 한정하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군민증을 수여한다.

또 곡성군청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기부자의 출신 지역 마을회관과 기부자가 지정한 마을에 감사패를 게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로 제한하게 됐으며 지역에 기부하는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했으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광양 참취나물 본격 출하 광양시, AI로 어르신 건강 챙긴다

130여 농가 44.5ha 재배

광양시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은 '참취나물'이 본격 출하되면서 봄철 소비자들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

예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있는 산나물이라 불리는 참취나물은 감기, 인후염, 두통의 약재로 쓰였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능이 전해지고 있다.

광양시는 진상면을 중심으로 130여 농가가 44.5ha의 청정 농토에서 취나물을 재배 중이다.

취나물은 시설재배의 경우 1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출하되고, 노지 취나물은 4월 중순부터 출하된다.

시는 2002년 취나물연구회를 조직해 농가교육과 현장 견학을 통해 재배 기술 습득과 인력육성에 힘 쓰고 있다.

또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취나물 시설하우스, 예냉 시설 등을 지원해 단지화했다. 취나물 계통출하를 위해 브랜드박스 지원사업 비로 매년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중수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은 "광양 참취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나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봄나물 중 최고인 광양 참취나물이 지역 대표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와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양시가 '오늘건강 앱(APP)'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늘건강 앱(APP)과 블루투스 기기를 제공해 대상자 스스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허약·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이다.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건강상태에 따라 블루투스 디바이스(손목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를 질환군에 맞춰 대여하고,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건강 미션 설정, 영역별 건강 전문가를 통한 비대면 건강상담을 한다.

건강 미션은 제대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인 혈당 측정하기(주 1회), 매일 세기 쟁기 먹기, 매일 충분히 물 마시기, 매일 손목활동량계 착용하기, 체중 측정하기(주 1회) 등으로 맞춤형 제공된다.

1개월간 대면으로 사전 건강 스크리닝 후 5개월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



광양시 도시보건지소 관계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후 건강 스크리닝(대면)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와 사업 지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션 목표 달성자에게는 인센티브 성공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혜정 광양시 도시보건지소장은 "건강 허약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스스로 충분히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며 "규칙적인 혈압 혈당 측정과 매일 활동량 확인 등으로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친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기자 노트

'효'가 살아야 '나라' 산다



이진택 동부취재본부 부국장

"우리는 지리산의 높은 기슭과 섬진강의 푸른 이성을 안고 조상 대대로 '홍'과 '효'와 '열'을 숭상하며 아름다운 명승 고적과 찬란한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이 고장에 산다." 1982년 4월 20일 군민의 날에 제정 선포한 구례군민헌장 전문이다. 충·효·열이 군민의 '훈'임을 망망에 고 했다.

BC 233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왕 단군(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은 '팔조교'를 통해 세 번째 조목에서 "사람이 부모를 바르게 모시는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효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십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로 "부모를 공경하라"했다. 석가모니 역시 '부모중경' 등 많은 경전을 통해 윤회와 연기에 의한 효를 설법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대와 지역·종교를 초월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실천해 왔으며 지금도 백년 천 년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날에 이르러 효의 사상은 가치와 이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통적 가치관의 변질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2000년대 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질서의 파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고령사

회의 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의견들이 종교·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다.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싱가포르의 효도법을 모델로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효행장려법'을 만들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은 16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 사실과 효행장려법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어 이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중 순천·나주·곡성·무안·진도·영광·함평 등 7개 시군과 도 분청만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군민헌장에서 '효'를 군민의 정신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례군의 경우 인구 시군인 순천, 곡성, 남원시 등이 조례를 만들어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각 자치단체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고 힘써야 하지만 효행에 대한 장려와 지원이 인구 증가의 밑거름과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구례군 의회에서 효행 장려법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효'가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lit@kwangju.co.kr

호산 안중삼 서장 유족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구례군에 500만원 전해...2019년부터 3000만원 기부

구례군은 지난 3일 호산 안중삼 서장 유족회(대표 안국순)가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호산 안중삼 서장 유족회는 2019년과 2020년에 어려운 이웃과 수재민을 위해 총 3000만원을 기부했다.

안국순 대표는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산 안중삼 서장은 1950년 7월 24일 한국전쟁 당시 구례지역에서 경찰서장으로 국민보



도연맹원 480명의 군민을 구한 인물이다. 안중삼 서장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 구례경찰서에 세워져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신(新) 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오늘 재운영

구례군과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부터 '신(新) 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사진)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타인능해(他人能解)는 누구나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조선 영조 때 무관 류이주 선생이 고택 운조루(雲鳥樓)를 세우고 뒤주에 이 글을 적은 뒤 어려운 이웃들이 쌀을 퍼가도록 한 데서 유래했다.

희망나눔가게는 지역 주민이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이 월 1회 2~3품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50건 이상의 개인·단체로부터 화장지, 참기름, 배개, 달걀 등을 기부받아 1천416명의 이웃에게 나누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다가 정비를 위해 올해 1월 한 달간 휴무하고 이번 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희망나눔가게는 구례읍 상설시장 내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하며 복지상담도 받을 수 있다.

후원 문의는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61-780-2561)로 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ℓ 당 213원 정액 지원

여수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가 상승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유류비 확대지원을 위해 1억8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나선다.

이전에 지원되는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11월~12월 사용된 휘발유·경유와 10월~12월 사용한 등유로 유종에 관계없이 ℓ 당 213원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오는 10일까

지 지원신청서를 면세유를 받은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 결제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5)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처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